

[보 도 자 료]



Korea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KTU)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날 짜 : 2012. 1.13.(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장석웅/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9-1 현대플라자 2층 (150-986)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02-2670-9437 E-mail : chamktu@hanmail.net

【보도자료】

동아일보의 치졸한 보도에 분노한다.

동아일보는 오늘(13일) [전교조 내부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이 학생인권조례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실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확보한 것처럼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전교조는 동아일보의 치졸한 보도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해당 기사는 자신이 참교육실천대회 참가자라 속이고 참석했다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발각되어 관련 자료집을 회수 당하고 행사장에서 쫓겨났으며 학생생활국장과는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조차 상실하고 있다. 오직 전교조를 음해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중편의 취재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학생생활국장은 발표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이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을 심화시킨 원인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

도하는 동아일보와 보수언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는 1년마다 전국참교육실천대회를 연다. 대회에서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며 활발한 토론과 조직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전교조는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사업으로 진행하는 민주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직필정론의 가치가 사라져 영혼이 없는 동아일보의 처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직문화일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흔들림이 없으며 나아가 학교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1월 13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